

01 교회소식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가 열려 국내외에서 기도 받고 치료받은 많은 사람의 간증이 실시간으로 이어져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금홍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황금, 유행, 몰약

행복한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되새겨 본다.

04 간증

권능의 증인들

권능의 기도를 통해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등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82호 2022년 12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치료와 응답,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 실시간 간증 이어져

지난 11월 25일 밤 11시부터 시작된 금요철야예배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과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11월 은사 집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응답의 하나님’(시 78:12~29)이라는 설교 말씀을 전한 뒤 회개 찬양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인도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어져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 간증 | “30년 동안 고통받던 다리 시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명호 집사 (68세, 중국 2교구)

30년 전, 저는 중국에서 업무차 오토바이를 타고 추운 지역을 두 차례 이동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오토바이에서 내렸을 때는 양쪽 다리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 뒤 양쪽 무릎 아래부터 발목의 뻣속까지 마치 얼음

을 댄 것처럼 시러왔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빠가 시리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요. 잠을 자려면 소주를 마시고 체온을 높인 후 자야 했을 뿐만 아니라 7, 8월만 빼고는 전기 매트를 깔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아내가 가져온 만민중앙교회 신문 ‘만민뉴스’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밝은 모습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넘치는 설교를 들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회장님 기도로 허리 디스크, 왼쪽 무릎 파열, 티눈, 치질, 피부병, 등 통증이 치료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해 갔지요.

저는 이번 은사 집회를 통해 고질적인 양쪽 다리 시림을 치료받기 위해 11월 7일부터 개최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환자 접수도 하였습니다. 24일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신 ‘중국 대교구 성령 충만 기도회’에 참석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11월 25일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흘러 휴지로 닦아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 30년 동안 고통받던 다리 시림 증상이 깨끗이 사라짐은 물론 10분 이상 꿇을 수 없던 무릎을 오래 꿇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 포토뉴스

#### 2022 추수감사절 단 장식

지난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절 단 장식은 곡물 39종, 과일 28종, 채소류 외 75종 총 142종으로 올려졌다. 단 장식은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시설관리국, 만민봉사대 등 성도들의 봉사와 찬조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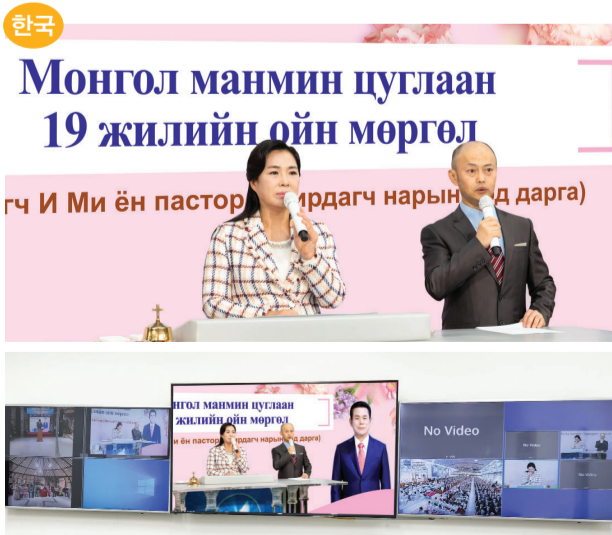
### 몽골 만민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

지난 11월 27일(주일) 오후 6시(현지 시각 오후 5시), 이 미영 목사(교역자회 부회장, 통역 발자르갈 집사)를 강사로 ‘뎨선 몽골 만민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담임 발저릭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 때 이미영 목사는 ‘사랑의 마음’(롬 5:8)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랑을 잊지 않고 최상의 가치 있는 선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의 삶처럼 최고의 사랑의 마음과 선으로 행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전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몽골 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과 케이크 커팅식 등으로 창립 19주년을 축하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미국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한 피오렐로 라 과디아는 뉴욕시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붙잡힌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을 위해 빵에 손을 댔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과디아 판사는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친 행동은 잘못이므로 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방치한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제가 10달러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는 중절모를 재판부 서기에게 내주며 “이곳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벌금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자를 돌리게 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도 47달러를 받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죄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판사의 입장에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편 그에게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기에 법을 지키면서도 노인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홀의 지혜가 풍성하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답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 1. '공홀'과 '선한 열매'와의 관계

'공홀'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쁜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지쳐 있는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공홀을 베풀 때 얻어지는 모든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므로 공홀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공홀 자체이기에 모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공홀 자체이기에 죄인

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도 끝까지 참아 주셨고(마 12:20),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던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베풀며 선한 일만 행하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사람들조차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홀을 통해 맺으신 선한 열매'입니다.

## 2. 생명을 살리는 공홀의 지혜

공홀은 단지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용서하고, 징계하며, 때를 좇아 구제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공홀의 지혜에는 용서의 공홀, 징계의 공홀, 구제의 공홀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 1)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용서의 공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공홀히 여기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홀히 여겨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할 때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며 남편을 위해 사랑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옳고 당연해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할 때라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꾼인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사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 편으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라도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면 공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보다 책망하는 것이 상대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징계의 공홀

용서와 징계는 상반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홀에 속한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8절에 “...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때 징계도 하시지만 죄의 담이 많이 쌓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징계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피하고자 자기 잘못을 덮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해 버리지요. 만일 낮아진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즉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허물을 알게 되어 권면이나 책망을 해야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의 권면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내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르는 것일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해 가르치려 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허함이 없이 권면할 때는 상대가 듣지 않습니다. 이 때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강한 말로 상대를 찌르며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책망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깨우쳐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해 보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 섞인 권면이나 비난을 들으면 낙심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는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는 공허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해야 하지요.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징계해 서라도 상대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염려하고 공허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책망할 때도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먼저 잘한 일들을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며 엄한 경고와 책망을 하신 뒤 또 다른 잘한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계 2:2~6). 책망으로 인해 상대가 힘을 잃지 않도록 칭찬 거리를 남겨두었다가 다시 한번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여 권면하거나 책망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3)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의 공허

공허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손길을 베푹니다. 참된 공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를 돕습니다(요일 3:18).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공허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받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허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허를 베풀며 돌아보아야 하지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공허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허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지요(눅 6:38).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 제자는 병으로 죽게 되었으나 그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결국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대상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구제해야 하지요(갈 6:10). 그런데 술이나 도박에 빠져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해 준다고 해도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공허히 여긴다고 해서 자금을 대주거나 동업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뿐더러 오히려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도운 사람들이 그랬지요(욘 1장).

용서나 책망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구제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만일 상

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3. 선한 열매가 가득한 공허의 지혜

주 안에서 공허함이 풍성히 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힙니다. 무엇보다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또한 공허를 베푼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악인에게도 끝까지 선으로 행하는 것, 인내와 사랑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다 열매에 속하지요. 이러한 선한 열매들로 인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허로 무수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에 그 공허의 열매로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공허로 맺힌 선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공허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마 9:13 ; 히 13:16). 이러한 마음을 알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시 37:4)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주는 의미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하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온 인류를 대표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지요. 이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되새기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물 1\_ 황금 '마음'

부귀와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한 대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일,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마음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이지요.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 예물 2\_ 유향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제거해 주는 유향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유향을 드리는 것이지요.

유향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성결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결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요삼 1:2).

#### 예물 3\_ 몰약 '변함없는 믿음'

몰약은 고대로부터 방향제 및 부패를 막아 주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장사지낼 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영적으로 썩지 아닐 것, 즉 변함없는 믿음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몰약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닐 온전한 영체의 몸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 “셀리악, 심장병, 탈장 치료 등 우리 가족은 권능의 증인들입니다”



하룬 임란 길 목사  
(40세, 파키스탄 편자브 주의회 의원)



2019년 12월에 태어난 제 아들 임마누엘은 태어날 때부터 배꼽 탈장이 있었습니다.

배꼽 탈장은 배꼽륜을 통해 복강 내에 있는 창자나 복막의 일부가 배꼽의 피부층을 밀어 볼록하게 나온 것을 말합니다. 탈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장기 감돈되어 고사하는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하지요.

더욱이 그 당시 임마누엘의 탈장 부위는 너무 커서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곳의 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수술만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수술받지 않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임마누엘의 배에 얹고 기도함으로 배꼽 탈장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임마누엘의 하복부 부위에 탈장이 또 생긴 것입니다. 하복부 탈장은 배꼽 아래에 위치한 복부 부위의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져 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복강 내 장기가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의사는 이번에도 수술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저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임마누엘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 일정이 생겨 저는 2022년 9월에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지요.

9월 4일 주일, 저는 임마누엘의 하복부 탈장 치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돌아온 후, 11일에 임마누엘이 정기 검진받았는데 그 결과 온전히 치료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아래 사진). 담당 의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되었다는 사실에 기적이라고 말하며 놀라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1993년 열한 살 때, 아버지(월슨 존 길 목사)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99년 6월에는 여동생 신시아(당시 7세)가 셀리악 병으로 죽어가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사진 위에 기도해 주셔서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요.

2018년 7월에는 신부전증과 심장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만민중앙교회에 기도요청 이메일을 보내 영상으로 온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10월, 라호르에서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위 사진)를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회가 펼쳐져 이후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당시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의 학업과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지요. 이후 저는 파키스탄 성결신학교(HTS)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인터넷으로 만민국제신학교(MIS)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편자브 주의회 의원이 되었지요. 저는 권능의 증인이 되어 파키스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7여 년 전, 제가 무심코 머리 실핀을 이용해 오른쪽 귀지를 파내는 과정에서 귓속을 잘못 건드렸는지 이후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귀에 무안 단물을 바르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자동응답서비스)를 받았더니 진물은 멈췄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른쪽 귓속 피부가 땅기며 답답하고, 근질근질해서 면봉으로 살살 만지면 또다시 진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불편했지만 심하게 아프거나 통증은 없었기에 병원에는 가지 않았고 막연히 ‘기도 받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염증이 점점 심해져 어떤 때는 잠잘 때 진물이 흘러나와 베개 위에 얹어 놓은 수건에 묻는가 하면, 일상생활 중에도 진물이 흘러나와 불편했지요. 심하면 고름 같은 것이 묻어나와 냄새까지 나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는 2022년 만민하계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응답받고자 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발견해 변화될 수 있도록

## “7여 년 된 오른쪽 외이도 염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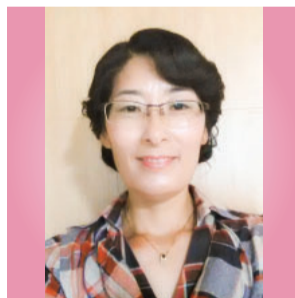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편했던 마음이 곧 내 위주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며 이후로는 자녀의 마음에 맞춰 바뀌어갔지요. 제가 맡은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8월 1일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전체 위에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오른쪽 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이어진 수련회 모든 일정도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했지요.

하계수련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서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귀에 손이 가곤 했는데 그동안 귀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치료받은 것을 깨닫고 딸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였지요. 제 오른쪽 귓속을 살펴본 딸은 예전에 진물로 인해 헐고 딱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황금주 권사  
(54세, 3세대 20교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령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63)223-9991, 010-4202-1537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생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